EDITORIA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9;58(4):259-259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폭력 피해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평가 및 예방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황 준 원

Evaluation and Prevention of Physical and Mental Sequelae in Victims of Violence

Jun-Won Hwang,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과거에는 여러 종류의 폭력 피해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 비의료 지원이 주를 이룬 것에 비해, 2000년대 이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지원에 참여하면서 폭력 피해의 발견, 치료, 예방 및 기관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특집의 저자들은 그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형사적 범죄 등 여러 폭력 피해의 대응과 치유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재를 상세히 고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 번째 특집은 '성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된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동기 성피해는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인을 비롯한 다학제적 민간 전문가에 의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두 번째 특집은 '가정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현재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책무와 더불어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등을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 특집은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법률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현재 지역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피해 아동에 대한 입소·거주·보호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또,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교육 결손 및 발달학적 후유증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치료, 개별교육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네 번째 특집은 '신체적 관점에서 폭력 피해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제'이다. 이 특집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평가 및 치료에 종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을 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평가 및 치료와 더불어 법적, 윤리적 난점과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특집은 '정신과적 관점에서 폭력 피해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제'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평가 및 치료를 담당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난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신경정신의학의 특집으로 '폭력 피해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평가 및 예방'이란 제목으로 총 다섯 편의 특집을 완성해 주신 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특집 원고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및 전공의가 환자 진료와 치료에 있어 참고할 만한 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